

소의 모기매개성 전염병 예방과 치료

농림수산부

모기가 전염시키는 소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하여 '96. 3. 15~4. 30 기간중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전국의 소 3,0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어항체 분포조사 결과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방역대책을 계재하니 참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

'96년 조사결과	3,000	1,485 (49.5)	1,437 (47.9)	1,543 (51.4)	1,355 (45.2)
'95년 조사결과	3,259	1,834 (56.3)	2,026 (62.2)	2,232 (68.5)	1,023 (31.4)
'94년 조사결과	3,000	682 (22.7)	758 (25.3)	767 (25.6)	570 (19)

1. 소 유행열(流行熱) (Bovine Ephemeral Fever)

원인체

- 소 유행열 바이러스(Ephemeral fever virus)

피해

- 아열대 및 온대지역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8~10월에 성우에서 발생함. 대유행은 10~20년마다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3년 주기로 발생되고 있음.

※ '88년 : 51,008두, '91년 : 28,531두 발생

- 감염률은 35~100%, 폐사율은 0~1.5%임.

증상

- 잠복기는 2~6일
- 일과성(一過性) 고열(41~42°C)이 3~4일간 지속(일명 3일열)

- 거품이 섞인 침흘림, 근육떨림, 관절의 부종, 유산, 설사, 괴하기종(皮下氣腫)이 나타남.

- 모든 증세는 일과성으로 나타나며, 발증후 3일부터 대개 정상으로 돌아옴.

진단

- 임상증상과 역학조사에 의하여 진단이 가능하나, 이바라기병과 감별에 유의해야 함.
- 실험실 진단은 혈액검사 및 환축의 혈액을 동물에 접종하여 바이러스를 증명함.

치료

- 예후가 양호하며, 치사율은 1% 이내임.
- 자연감염에서 회복된 소의 혈청을 정맥주사하는 혈청 요법이 있음.
-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실시하고, 항생제로 2차적인 세균감염을 치료 예방함.

예방

- 위생적인 사양관리, 백신접종
- 축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살충제를 살포하여 가능한 한 모기의 접근을 막음

2. 아까바네병(Akabane Disease)

원인체

- 아까바네병 바이러스(Akabane disease virus)

피해

-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등에서 발생되고 모기 등 곤충에 의해서 전파됨.
-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지역에서 다발하고, 유사산 및 기형태아(奇形胎兒) 생산으로 피해가 있음.

증상

- 성우에서는 불현성 감염(不懸性感染)을 함. 만일 임신우가 감염되면 수직감염(垂直感染)하여 유사산 및 조산을 하며 기형태아(奇形胎兒)을 분만함.
- 기형태아는 사지(四肢) 또는 척추관절(脊椎關節)의 만곡 및 대뇌결손과 이에 따른 내수두증(內水頭症)을 나타냄.

진단

- 역학적, 임상병리학적으로 추정
- 확실한 진단은 기형태아를 분만한 어미소와 초유(初乳) 급식전의 기형태아로 부터 아까바네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항체 증명

치료

-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음

3. 이바라끼병(Ibaraki Disease)

원인체

- 이바라기 바이러스(Ibaraki virus)

피해

- 아열대, 온대지방에서 8~11월에 다발함.
- 10년 내지 20년 주기를 두고 발생하며, 발병율은 20~30%, 치사율은 5% 이내임.

증상

- 열이 오름(39°C), 거품이 섞인 침흘림, 구강(口腔)의 괴사병변, 인후두마비(咽喉頭麻痹), 발굽부위의 종창등이 나타남.
- 이물성 폐염(異物性肺炎)을 일으키기도 함.

진단

- 부루텅, 구제역, 소유행열과 감별진단에 유의해야 함.
- 병변조직으로부터 바이러스 분리 동정
- 중화항체(中和抗體) 시험법에 의한 혈중항체(血中抗體) 증명

치료

- 원인요법(原因療法)은 없으나 오연성 폐염(誤嚥性肺炎)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해야 함.
- 연하장애로 인한 폐염이 병발되지 않으면 예후는 양호함.

예방

- 위생적인 사양관리, 예방접종, 축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살충제를 살포하여 가능한한 모기의 접근을 막음

4. 소 츄산병(Chuzan Disease)

원인체

- 레오비리데(Reoviridae), 오비바이러스(Orbivirus)속의 츄잔바이러스(Chuzanvirus)

발생 및 역학

- '85~'86년 일본 규수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위도 36도 이남지역에 한정되어 발생.
- 감염율 20~60%, 피해율 10~15%(일본의 경우)
- 발생은 계절성(10월~이듬해 3월), 주기성, 쌀겨 모기에 의해 전파
- 발생에 일정한 유형(유사산→체형이상→뇌수종)
- 동일우에서 재발성이 적으며, 주로 초임우에서 다발

증상

- 성우에서는 불현성 감염(不顯性感染)을 하고, 유산, 조산, 사산, 태수과다증 및 난산등이 발생하나 아까바네에 비해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음.
- 신생 송아지에서는 체형기형보다는 심한 허약자 우되거나 시력장애, 관절기형에 의한 운동실조, 기립불능등이 나타남.

진단

- 혈청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검사(혈청중화 항체시험), 쌀겨 모기나 급성기 혈액으로부터 바이러스 분리
- 감별진단
 - 임상적으로 아까바네는 태아의 각종 기형증상(대뇌수두, 사지관절만곡등)이 많이 발생하고 츄산병은 태아의 체형이상은 거의 없으며 허약, 기립불능, 시력장애 및 신경증상 가진 송아지 출산

치료

-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음.